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20차, DA 카슨의 책, 기독교 성경의 지속적인 권위에서 발췌한 FAQ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DA 카슨의 책, *기독교 성경의 지속적인 권위에서 발췌한 FAQ*입니다.

저는 DA 카슨이 편집한 기독교 성경의 지속적인 권위의 뒷부분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여 이러한 풍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책을 사서 읽을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크림 드 라 크림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에세이 중 일부의 결론을 얻고 있으며,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14.1,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볼 때 기원에 있어서 매우 다양했으며 교리의 통일성은 자신을 정통으로 여기는 집단에 의해 점진적이고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은 3~4세기가 걸렸다고 증명했습니다. 답: 확실히 그 입장은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에 Walter Bauer의 책 덕분에 대중화되었고,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대중화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Bart Ehrman입니다. 그러나 실제 증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여러 신학적 입장에서 하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유된 신학적 비전에서 여러 가지 이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글에서 바우어의 논제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있었고, 그들은 다른 파벌에서 서로 대적했다고 밝힙니다.

카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의 14장 저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불법화한 실질적인 통일성과 다양한 이단이 그 통일된 비전에서 생겨났습니다.

14.2,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이며, 바우어와 더 최근에는 에르만의 작업을 뒤집습니까? 첫째, 신약의 페이지 내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때때로 주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적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예수가 그들에게 각인을 찍었기 때문에 예수와 직접 접촉하지 못한 2세기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입장의 차이가 비교적 작았습니다. 둘째, 신약성서의 네 복음서 모두 특정 사도들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유다 복음서와 마리아 복음서와 같은 후기 문서는 사도들과 추적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셋째, 사도적 전통을 보존하는 프로토-정교회의 이 신학적 궤적을 따르는 것은 다른 집단의 문헌과는 현저히 대조되는데, 그들의 영감은 사도적 전통과 명백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적이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혼동하지 않지만, 그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16.2,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도 복음을 믿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지만, 일관되게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는 문제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조만간 복음이 진정으로 믿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구약의 증거, 사도적 증거, 예수 자신의 가르침의 일관된 패턴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도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과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구원받는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복음을 믿는 것 이상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교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연구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나누게 하셨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연구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경 뒤에는 한 명은 신이고 한 명은 인간인 두 명의 저자가 있다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도전이 성경 언어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 저자를 신적 저자와 맞붙게 한다면, 한 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른 쪽은 그에 따라 약화되고, 제안된 많은 모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토론은 오해된 단어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신에 의해 구술되었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간 작가를 구술을 받는 비서로 축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술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신학자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 칼빈은 전달 수단을 설명하기 위해 라틴어로 dictate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성경의 단어는 실제로 신의 단어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인간 저자가 단순한 필사 이상의 기여를 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교회가 신의 지시를 고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언어의 사용을 성경의 결과와 혼동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감 이론, 즉 기계적인 비서로 기능하는 기계적인 저자를 통한 신의 말씀 지시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있습니다.

18.2, 창세기의 창조 기록이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와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 매우 흡사하게 들리니까? 물론 흥미로운 유사점이 몇 가지 있지만, 이러한 유사점에서 도출된 책임감 있는 추론은 우리가 창세기와 바빌로니아 신화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유사점에 대한 가능한 설명도 평가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주의 깊게 연구하면 창세기와 에누마 엘리시 사이에 세계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논평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다양한 문학 장르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나요? 네, 이것은 공정한 논평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가장 진지한 논평은 고백적이고 교회적인 환경에서 발전했습니다. 성경의 문학 장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논평 중 다수는 대학 환경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권위와 문학 장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바드 차일즈와 케빈 J. 밴 후저의 글에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다양한 문학 장르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9.2에서 성경의 서사 순서, 스토리라인, 서사 순서, 스토리라인은 나머지 성경 자료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서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계시로 이어지는지 확립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경우, 예언이 권고하고, 책망하고, 위협하고, 예측하는 경우, 각 장르는 호소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거나 예를 들어 책망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주의 깊게 연구하면 각 장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각각이 어떻게 전체에 기여하여 통일된 계시를 제공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다양한 문학 유형과 다양한 장르에 대한 문학 연구는

성경을 믿고 장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르를 주의 깊게 연구하기 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매우 다양한 문학 장르와 관련된 이점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배리 웹이 인용한 것처럼, 성경의 다양성은 성경의 권위가 우리 인간성과 완전히 맞는 종류의 권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창조물에서처럼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성 내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힘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투쟁, 죄악을 완전히 인식하고 맞는 권위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강제적인 권위라기보다는 은혜로운 권위입니다. 인용문 닫기. 이 점에서 성경은 꾸란과 매우 다릅니다.

후자는 자신의 신을 위협하지 않고는 인간에 참여할 수 없는 신을 묘사합니다. 성경의 신은 다양한 문학 장르에 반영된 것처럼 인간과 여러 수준에서 상호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인간이 되어 최고로 상호 작용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책과 예언자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을 준 신입니다. 인용문 닫기.

20.1, 성경의 명확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꽤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모든 의견이 똑같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크 톰슨의 제목에서 말했듯이, 은혜로운 아버지의 관대한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자들에게 주신 언어로 구원의 목적을 펼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은 반복적으로 성경의 명확성을 전제로 하셨으며, 특히 그가 반복적으로 "너는 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받아들이는 데 모두 관여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인용하자면, 성경의 명확성은 궁극적으로 신의 효과적인 소통 행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성경의 특성으로, 이 텍스트의 의미가 믿음으로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인용문 닫기, 마크 톰슨의 에세이. 20번.

22.1, 성경의 일부인 복음서에 호소하여 예수의 성경에 대한 견해를 확립하려는 것은 약간 순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악순환은 피하고 싶지만, 어떤 영역에서든 최고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더 부드러운 순환이 있습니다. 그 최고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외부 권위에 호소해야 한다면, 그 외부 권위가 첫 번째 권위를 대체하여 동일한 긴장으로 그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무한한 퇴보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권위를 확립하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권위를 확립하는 권위를 찾는 일이죠. 많은 학자들은 어떤 종류의 부드러운 순환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책의 22장. 첫 번째 질문.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사용에 대해 말해 주세요 23.2.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사용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때때로 신약 성서 저자들은 단순히 구약 성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구약 성서 구절과 언어적 연결 이상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의도된 경우, 그것은 여러 종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예측의 직접적인 성취, 미묘한 문맥적 메아리, 어떤 종류의 신중하게 정의된 인구 조사 플레니오르 , 더 완전한 의미, 어떤 종류의 유형적 연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을 주의 깊게 탐구하면,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한 방식은 1세기의 일부 평행 유대교 에서 구약을 사용한 방식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 카슨은 이 책의 23장을 인용하며 신약은 구약을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 됐어요. 그는 그것이 다양하다고 말해요. 다양하고 때로는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신학으로 옮겨가야 할까요? 24. 2. 많은 제안이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더하면 됩니다. 원리. 구체적인 예에서 보편적인 추상적 원리로의 원리.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경의 궤적을 따르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따르세요. 각 경우 제안의 장점이 무엇이든 피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칙화 옵션을 따르면 텍스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추상적인 원칙을 텍스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보다 더 권위 있게 만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교회의 긴 역사와 영 그 자체를 교사들에게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마스터하는 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문 에 마스터되어 그 아래에서 살고, 숨쉬고, 하나님의 충고에 충실함을 추구하면서 본문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5. 1,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든 알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널리 퍼진 냉소주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인식론, 즉 지식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정교한 논의 뒤에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제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핵심 측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식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25. 2?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당화되거나 보증된 믿음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나는 달이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보증된 것일까요? 나는 예수가 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정당화된 것일까요? 곧 인지적, 도덕적, 인간적, 유한성, 죄성, 증거, 이성, 신성 감각, 신이 인간에게 내장한 신성함의 감각, 계시, 믿음 등 광범위한 질문이 학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식론은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무오성(28. 1)과 같은 단어는 시카고 성명서에서처럼 끝없는 자격, 구별, 정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매력과 유용성을 잃지 않습니까? 답: 그러한 자격과 구별은 신학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중요한 용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 칭의, 진리, 영, 은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간단한 정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후의 교류에서 세부적이고 때로는 기술적인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오성에 대한 어떤 간단한 정의가 제시될 수 있을까요? 그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폴 헬름을 인용합니다.

폴 헬름의 말처럼, 인용문, 표현, 주장, 문장, 공식, 문서, 문서의 일부는 오류 없이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무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맏소사. 오늘날 해석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개인주의 영역이 서구에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석적 커뮤니티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기독교인 그룹입니다. 그러한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교파일 수도 있고, 계획된 토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적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석을 경청하려는 의지는 기독교인들이 글로벌 기독교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고 있는 시기에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29. 2. 그렇다면 다양한 커뮤니티의 모든 해석이 동등하게 타당하고 동등하게 충실할까요? 방금 위험을

지적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단일 커뮤니티도 개별 성경 구절이나 주제에 대한 모든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주의와 겸손의 행위입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풍부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직접적인 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거짓 교리,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에 대한 성경의 많은 경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해석이 동등하게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이 특정 커뮤니티에 의해 지지되고 보호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충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성경을 다시 읽고, 더 큰 충실함을 의미한다면 바로잡히기를 열망하고, 마치 우리가 최후의 심판자라는 듯이 성경 위에 서지 않으려고 열망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 위에 서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성경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때, 30.2,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요점이나 저 요점에서 선호하는 특정 성경 해석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걷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의 역사는 또한 과학 이론이 이론에서만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종종 수정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는 아무리 현대 과학적 헌신에 깊이 얽매어 있더라도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에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우리는 성경과 다양한 과학이 각자의 용어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성경이 오늘날의 과학을 다루도록 강요하여 해석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깊은 차원에서, 성경의 거룩한 책과 다양한 세계 종교, 다양한 세계 종교의 성경의 거룩한 책이 실제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은 서구 세계에서 매우 흔하지만, 적어도 서구가

특정 형태의 다원주의에 헌신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양한 경전들은 세부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심오한 개념적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실제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같은 의미에서 신의 아들인가. 신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신은 여러 분이신가.

신은 하나, 단순 이슬람인가, 아니면 신은 하나, 기독교의 복잡한 삼위일체인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길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순수한 은혜로 구원받는다, 등등.

게다가, 이 모든 성서가 실제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전통에 속한 독실한 신자들의 지성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경계를 넘나드는 진지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진지한 대화는 차이점을 은폐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존중심과 친절함을 가지고 대화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 있을까요? 성경의 자기 증명 주장, 31.2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순환 논증의 한 형태가 아닌가요? 우리는 다시 그 순환적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들은 순환적이지만 악랄하게 순환적이지는 않습니다. 궁극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확립할 때 어느 정도의 순환성은 불가피합니다. 대신, 성경의 권위를 성경 외의 더 큰 권위에 근거하여 확립할 때, 성경 자체가 최고의 권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성서인 꾸란을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성서인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일까요? 유사점은 피상적입니다. 투명하게 말해서, 두 종교는 각자의 신도들이 신성하고 권위 있다고 여기는 책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유사점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많은 인간 저자가 1천 년 반에 걸쳐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여러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경의 책들은 전체적으로 창조에서 완성까지 역사의 궤적을 그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인간 저자들이 성령에 의해 그렇게 이끌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 텍스트가 참으로 신의 숨결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된 꾸란의 말씀이 인간의 중재 없이 신의 말씀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무함마드는 영감을 받았거나 독특한 어휘나 그와 유사한 것을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중 저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꾸란의 말씀은 신의 말씀입니다. 무함마드는 단지 신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에게 준 것을 암기하고 기록하기 위해 약 22년 동안 신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구조적으로, 꾸란은 남성과 여성의 많은 경험을 통해 역사의 호를 그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114개의 수라,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이며, 대부분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명령적이고 권고적인 초점으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책을 칭찬하며, 이 과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신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일반적인 계시로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떤 인간에게는 특별한 계시로 여러 방식으로, 특히 그의 아들의 성육신과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시청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계시록과 성경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DA 카슨의 책, *기독교 성경의 지속적인 권위에서 발췌한 FAQ*입니다.